

나눔터

퍼낸곳: 한국성폭력상담소 / 퍼낸날: 1993년 1월 31일 / 계간 발행 / 주소: 서울 서초구 우체국 사서함 45호 (우.137-600) / 전화: 02) 525-5837~8



1992년 11월 27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 김진관 석방을 위한 한마당"

차 례

이런 일을 했습니다.....	2	연령별 성교육 (김정희)	11
여기는 상담실	4	나눔터 애깃글/똥배를 위하여 (엄인희)	12
상담은 이렇게	6	나눔터 감상 (장영복)	13
이렇게 생각한다	7	미리보는 상담소	13
성폭력 사건일지	7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박춘선)	14
특집:전화폭력	8	사무봉사 활동을 하고나서 (박수미)	14
아들과 생리 (심창교)	10	성폭력 상담소를 도와주시는 분들	15
		나눔터 알림판	15

성폭력위기센터 준비 어디까지 왔나?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7천 3백여만원이 모아졌으며 6개월간은 여성신문사에 사무국을 둔 채 모금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어느새 독버섯처럼 자라난 성폭력범죄는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성폭력 발생률 세계3위'라는 충격적 보도나 80년대 이후 매년 5천 건 이상 신고되는 성폭행 사건들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성폭력 문제가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본 상담소는 피해여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되는 위기센터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성폭행을 당한 후의 피해증상들은 크게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고통과 고소과정에 겪는 고통을 들 수 있다. 이렇게 광범위한 후유증을 유발하는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의료적, 심리적, 법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92년 2월 여성신문사의 후원아래 성폭력 위기센터(이하 위기센터) 설립위원회를 결성하고 모금운동에 들어갔다.

위기센터의 설립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 피해 후 의료적 조치를 취한다. 둘째, 피해자의 심리적 위기를 상담해 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셋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을 때 적극적인 법적 지원을 한다. 이러한 활동 목적은 근본적으로 여성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성폭력의 연결고리를 끊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위기센터의 기능은 크게 다섯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24시간 상담활동 기능으로, 성폭행 피해자가 언제든 전화연락을 하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의료지원활동으로 성폭행 발생 직후 피해자를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여 의료검진을 받도록 피해자와 동행한다. 이 과정에서는 고소할 경우를 대비해서 증거자료를 수집해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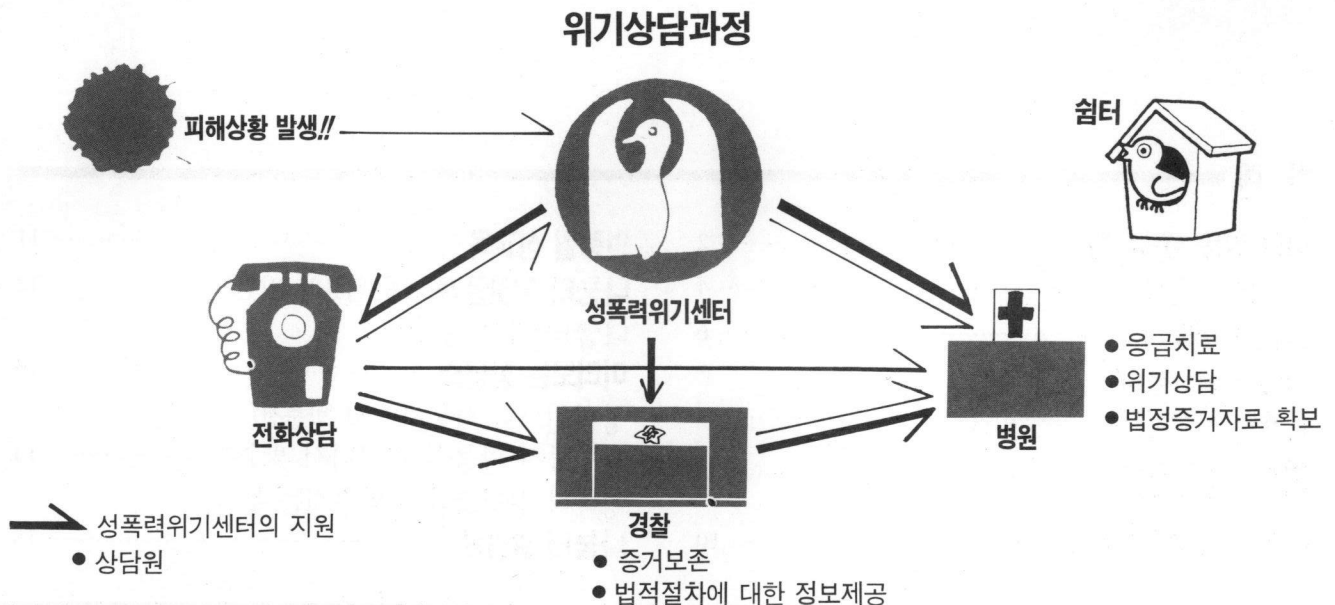
셋째, 법적 지원활동으로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길 원하면 피해자와 함께 경찰과 검찰의 신문과정과 재판과정에 동행한다. 이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이중, 삼중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넷째, 피해자 후 위험한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며 정서적, 심리적 안정이 필요할 시 안식처의 기능을 갖는 쉼터와 연결해 준다. 쉼터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현실에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자신감과 의지력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다섯째, 성폭행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호신술 강화를 개최하는 등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적인 위기센터로서의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은 위기센터의 사업계획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주관하며, 설립위원회의 사무국은 여성신문사 내에 두고 추진업무를 맡아왔다. 설립위원은 여성계뿐만 아니라 학계, 정계, 의료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시고 설립위원회에서는 공동대표를 의료계의 문국진박사, 법조계의 조영환변호사 및 여성신문사 대표 이계경사장,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최영애소장으로 결정했다.

설립위원회는 지난해 6월 24일 프레스센터에서 발기인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모금활동에 들어갔으며 11월 5일에는 하이아트 호텔에서 기금마련을 위한 만찬모임을 가졌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7천 3백여만원이 모아졌으며 앞으로 6개월 간은 여성신문사에 사무국을 둔 채 모금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준비작업으로 서울시내 각 경찰서와 병원 등의 협조기관들을 섭외하고 상담원 확보를 위해서 올 3월부터 24주간에 걸쳐 상담원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리 : 노주희 간사



윤금이 공동대책위 참가해

92년 10월 28일 동두천에서는 미군클럽 종업원으로 일하던 윤금이(26)씨가 주한 미군병사에 의해 변태적으로 살해 당한 사건이 있었다.

용의자는 케네스 마클 이병(20)으로 31일 윤씨의 피가 묻은 바지를 입은 채 귀대하다 부대 정문 앞에서 한국경찰에 검거됐으나 곧바로 미군범죄수사단(CID)에 인도됐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동두천 민주시민회, 대학생회, 그리고 14개 여성단체와 각 정당 여성위원회에서는 함께 대책위를 꾸리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11월 17일에는 공동대책위 주최의 윤금씨 추도식 및 규탄 시민대회를 가졌다.

이후 지속적으로 주한미대사관을 항의방문했고, 12월 5일부터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5시까지 서울역에서 범국민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직장내 성폭행 자료집 펴내

본 상담소는 지난 11월 교육자료집「건강한 일터, 자유로운 여성-직장내 성폭행 예방 및 대책」을 발간했다. 이는「성폭력이란 무엇인가?」,「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하여-어린이성폭행 예방 및 대책」에 이어 세번째로 펴낸 교육자료집이다.

부록으로는 현행 성폭력 관련법과 여성계가 작년에 마련한 성폭력특별법 시안 중 직장내 성폭행 관련 조항을 실었다.

‘성폭력위기센터 설립기금 모금’을 위한 만찬모임’가져

지난 11월 5일 오후 7시에 하이아트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성폭력위기센터 설립기금 모금을 위한 만찬모임이 있었다. 이번 모임은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보다 신속하고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성폭력위기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기금 모금 특별행사로서 여성계 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의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성폭력 추방과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다. (관련기사 2쪽)

아이들과 함께한 송년잔치

지난 12월 23일 3시에 상담소 식구들을 위한 송년잔치가 있었다.

간단한 음식상과 예쁜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진 이번 잔치에는 특히 상담소 식구들의 자녀들이 많이 참석하여 노래와 춤, 게임 등으로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이번 모임은 자녀들이 엄마가 활동하는 상담소와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일그러진 성문화, 새로 보는 성』발간

지난 12월 30일 본 상담소는 성,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정보, 그리고 통념들을 바로 잡고 보다 인간적인 성문화를 모색하기 위한 글들을 모아『일그러진 성문화, 새로 보는 성』을 출판했다.

한국사회의 성문화 / 남자가 배우는 성, 여자가 배우는 성 / 순결 / 괴로운 성, 즐거운 성 / 임신한 여성의 눈으로 본 사회 / 피임 / 인공유산 / 성폭력의 실상Ⅰ: 감추기와 드러내기 / 성폭력의 실상Ⅱ: 다양한 성폭력과 그 대응 / 자녀의 성교육은 이렇게 하세요 / 사랑과 성, 제자리는 어디일까라는 제목으로 구성된 이 책은 풍부한 사례들을 곁들여 설명함으로써 현실감을 더해주고, 학생, 직장인 그리고 일반인들이 부담없이 읽어내려 갈 수 있도록 되어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바로 설 수 있는 한줄기 길잡이가 될 이 책은 2백53쪽이며 가격은 4천 3백이다.

상담사례 연구모임 두차례 가져

상담부에서는 상담활동을 평가하고 상담원 지속교육을 겸한 상담사례연구모임을 두차례 가졌다. 지난해 12월 5일 제8회 모임에서는 그동안 경찰에 연계한 사건의 후속 조치에 대해 김강자경정(서울시경 민원실장)의 특강이 있었다.

올해 1월 5일 처음 열린 제 9회 모임에서는 1, 2기 상담원들이 모여 92년 상담활동을 평가하고 93년 상담부 활동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날 모임에서는 상담일지 기록, 지속상담 file화 작업, 경찰과 병원의 연계,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문위원의 확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그동안 인권부에서 담당했던 법정지원(법정동행, 진정서 보내기)을 상담부에서 맡기로 함에 따라 상담원들의 법정지원을 위한 지침서를 만들기로 했다.

2월 상담사례연구모임에서는 ‘기독교와 성폭력’이라는 주제로 본 상담소 최영애 소장의 특강이 있을 예정이다.

자문위원 신년모임 가져

본 상담소는 지난 1월 12일 스테파노스(민병진 상임이사 음악실)에서 자문위원 신년모임을 가졌다. 자문위원 74명 중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은 음악과의 만남, 미술과의 만남, 재치문답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자문위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자문위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상담소를 위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던 이날, 자문분야별(상담, 의료, 법률, 홍보출판, 연구, 운영)모임에서는 자문일정, 내용 등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상담소와 자문위원간의 보다 유기적인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분야별로 모임을 갖기로 했다.

제3기 상담원 예비 여성학 교육 곧 시작

본 상담소 제 3기 상담원 교육이 3월 16일부터 시작된다.

이 교육은 여성학 교육, 상담원 본교육, 실습교육 과정으로 나뉘어 각각 2개월씩 총 6개월 동안 진행된다. 교육의 전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본 상담소의 상담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지금까지 본 상담소에서는 약 50여명의 상담원(초기, 1기, 2기)이 배출되어 활동하고 있다.

평소 성폭력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있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뜻을 함께 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관련기사 15쪽)

• 이상은 날짜순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91년 4월 13일 개소한 이래 92년 12월말 현재 2천 8백 34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92년 상담건수는 1천5백58건이다. 한달 평균 1백~1백50건 정도의 상담이 들어오고 있다. 92년 상담추이를 보면 <표1>과 같다.

현재 성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을 마친 1, 2기 상담원 30여 명이 월~금요일 (10:00~5:00), 토요일 (10:00~1:00)에 상담을 받고 있다. 특히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면접상담을 하고 있다.

전체 상담 건수 중 성폭력 피해 유형을 분류해보면 <표2>와 같다. 강간이 9백51건 (33.6%)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상담이 7백 99건 (28.2%), 성추행 3백5건 (10.8%), 혼인 빙자 76건 (2.7%), 윤간 75건 (2.7%), 남성피해 18건 (0.6%), 가해자 상담 7건 (0.2%)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상담의 21.3%를 차지한 기타 부분의 경우 성문제, 이성교제, 아내구타, 인신매매, 남편의 외도, 인공유산 등으로 다양한 상담이 의뢰되고 있다.

그동안 상담한 피해 여성들의 연령은 최저 생후 6개월에서 최고 60세까지로 나타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를 연령별로 분류해보면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28.4%, 중고생이 19.5%, 성인 52.1%이다. <표3>

특히 놀라운 것은 남자어린이가 성인남성에 의해 성폭행 당한 사례가 5건이나 되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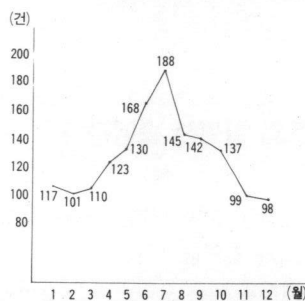
한편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보면 강간사건 9백51건 중 6백95건 (73.1%)이 친인척, 이웃, 데이트 상대, 선배, 직장상사(동료) 등 아는 사람이었고, 2백26건 (23.8%)이 모르는 사람에 의해 일어났다. 또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30건 (3.2%)이다. <표4>

산부인과,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본 상담소 의료 자문위원들과 연결하고 있으며, 신고되지 않은 사건 중에서 내담자가 고소를 원할 경우 경찰에 연계하고 있다. 또 구체적인 법률적 상담은 경찰, 변호사, 검사 등 법률 자문위원들에게 도움을 청해 이루어지고 있다.

내담자 중 은신처나 쉼 곳이 필요한 경우 외발산동의 은강자매복지회관과 하월곡동의 한 쉼터를 소개하고 있다. 현재 1명의 내담자가 하월곡동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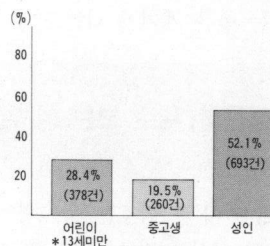
보다 나은 상담을 위해 피해여성들로 이루어진 집단상담 프로그램 마련, 법정지원 지침 마련,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등 앞으로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표 1> 1992년 성폭력 상담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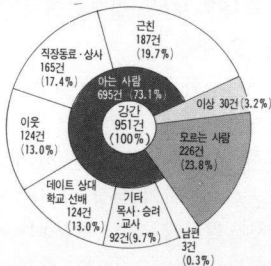


<표 3> 성폭력 피해자 연령별 분류

* 강간·윤간·성추행 포함



<표 4> 강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표2> 상담분류표 1991.4~1992.12 (12월 31일 현재)

피해유형	가 해 자		피 해 자			소계	
			성 인	중·고·생	어린이		
강 간 (951) 33.6%	아는 사람 (695)	근 친	아버지·오빠 친인척	16 26	28 14	63 40	107 80
		이웃	41	22	61	124	
		데이트 상대	100	24		124	
		직장상사·동료	162	3		165	
		부 부 강 간 기	3 54			3 92	
	모르는 사람 (226)		105	65	56	226	
	미 상 (30)		13	5	12	30	
윤간(75) 2.7%			37	37	1	75	
성 추 행 (305) 10.8%	아는 사람 (196)	근 친	아버지·오빠 친인척	2 6	9 5	23 14	34 25
		이웃	9	7	50	66	
		데이트 상대	7	4	4	15	
		직장상사·동료	27	4		31	
		기 타	12	7	6	25	
	모르는 사람 (63)		33	9	21	63	
	미 상 (7)		2		5	7	
음란전화 (39)			38	1		39	
혼인빙자(76) 2.7%			76			76	
남성피해(18) 0.6%			8	5	5	18	
기 타 (603) 21.3%		성문제·순결	80	13	8	101	
		인 신 매 매	5	2		7	
		아 내 구 타	21			21	
		장 난 전 화	45	25	1	71	
		기 타	362	34	7	403	
재 상담 (799) 28.2%		강 간 윤 성 추 행 혼 인 빙 자 성 피 해 기 타	495	63	241	799	
가해자상담(7) 0.2%			6		1	7	
통 계			1791	402	641	2834	

* 어린이는 13세미만 국민학생으로 분류했다.

친딸 강간범, 정신질환자 아닌 정상인

지난 11월 26일, 친딸 2명을 10년 이상 강간해 온 아버지(김창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피고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되었다.

항소심에서 피고측 변호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통상인의 정신건강상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 것 같다"며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정신감정 결과 "범죄자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졌으나, 알콜중독이나 성도착증은 없고 자신의 의식과 판단력이 있는 상태에서 성행위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만약 피감정인이 딸 두명과 지속적인 성행위를 해왔다면 자신의 행위를 모두 기억하는 정상적인 정신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성폭행"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성폭행범, 특히 근친성폭행 가해자는 정신병자일 것"이라는 통념을 뒤엎은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이다.

천호동 교회 목사 사건

교회의 일반여신도를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 온갖 성폭행을 해 온 목사가 한 피해자의 상담으로 구속되었다. 김강자 경정에 의하면 목사는 강간, 사기, 협박 등으로 10년 이상의 형을 받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한다.

<편집자 주>

지난호(제5호) 나눔터에서 4쪽: '김보은, 김진관 사건 상고하다'에서 원주교도소를 청주교도소로 고칩니다. 5쪽: '이렇게 생각한다'에서 김보은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고칩니다. 6쪽: 특집기사 '처녀막'에서 굵은 글씨로 쓰여진 '반드시 출혈이 동반되지 않는다'를 '반드시 출혈이 동반되지는 않는다'로 고칩니다.

김진관의 특별사면운동 활발

작년 12월 22일 김보은, 김진관 사건의 상고심 선고공판이 있었다. 이 사건을 아는 일반 시민, 여성사회단체, 가족 등이 법적으로 마지막 기대와 희망을 걸었던 대법원 판결의 결과는 “상고기각”이었다. 따라서 김진관은 징역 5년, 김보은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지난 1년 동안 본 상담소에 접수된 강간상담 중 근친간간이 약 20%라는 것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은 단순히 김보은, 김진관이라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더 이상 덮어 둘 수 없는 우리사회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랑의 영역인 가정 안에서 일반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도의 비인간적이고 굴욕적인 성폭행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 안에서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고 무기력해지며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10월 2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보은씨는 피해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김진관씨의 구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보은, 김진관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이들에 대한 석방이 성폭력 피해 후 수 많은 후유증에 시달리며 고통받는 여성들은 물론 그 가족에게도 큰 용기와 힘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김진관씨의 특별사면 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작년 11월 27일 이화여대 가정관 소극장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 김진관 석방을 위한 한마당” 행사를 했다. 이 행사에는 5백여명의 학생, 일반시민 등이 참여해 춤마당, 연주마당, 노래마당과 함께 김진관씨 석방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마당도 함께 펼쳤다.

그리고 지난 1월 11일 김영삼 차기 대통령에게 김진관씨의 특별사면 요청과 함께 이 사건을 위한 특별면담도 신청하였다. 또 공대위에서는 김진관씨의 특별사면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2월 3일 서울YMCA 앞에서 거리서명을 받았다.

김보은, 김진관! 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 학업을 계속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한다.

김보은, 김진관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일지

1992년

1. 17. 금 사건발생
19. 일 구 속
20. 월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상담전화 접수 (내담자: 김진관의 아버지 김영구)
31. 금 기 소
3. 3. 화 김보은, 김진관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4개여성단체, 8개 대학)
13. 금 1심 제1차 공판 (김보은 신문), 제1차 기자회견
17. 화 1심 제2차 공판 (김진관 신문), 제2차 기자회견
28. 토 1심 제3차 공판 (증인신문, 변호인변론, 피고인최후진술, 징역12년 구형)
4. 4. 토 1심 제4차 공판 (김진관 징역7년, 김보은 징역4년 선고), 제3차 기자회견
공대위 - 충주 시내 거리홍보전
23. 목 확대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전국 56개 여성, 사회단체와 학생 대책위) 21인의 공동변호인단 구성, 9인의 자문위원단 구성
5. 22. 금 “보은, 진관 무죄석방과 성폭력특별법 제정 촉구대회” 개최
장소: 서강대 청년광장, 참석인원: 3백여명
자료집 발간: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6. 21. 일 sbs TV 미스터리 다큐멘터리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김 보은, 김진관 사건 방영
30. 화 항소심 1차공판 연기
7. 1. 수 항소심 제1차 공판 연기에 대해 재판부에 항의문 발송
6. 월 항소심 제1차 공판 (김보은, 김진관 신문, 김보은 반대신문)
9. 목 남문우 검사 항의 방문, 담당재판부에 성폭력자료 발송
20. 월 항소심 제2차 공판 (김진관 신문, 증인신문-김정순, 정유진)
21. 화 공대위 - 명동성당 앞 거리서명 운동 (8백7명 서명)
8. 17. 월 항소심 제3차 공판 (증인신문 - 김광일, 김재환 한양대 신경 정신과 교수)

24. 월 항소심 제4차공판 (구형공판: 12년 구형), 제4차 기자회견 재판부에 탄원서와 서명용지 제출
- 탄 원 서 : 이금옥 (37세, 주부) 외 2백16명
- 서명용지 : 단국대 교수 (2백64명) 외 일반시민, 학생들 총 8만8천97명 서명
9. 8. 화 KBS TV “아침마당”에서 김보은, 김진관 사건 방영 (토론프로)
14. 월 항소심 제5차 공판 (선고공판) : 김보은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김진관 징역5년
공대위 - 거리홍보전 (서울고등법원-고속버스터미널)
16. 수 대법원에 상고
10. 2. 금 김보은 석방 (판사 직권석방)
5. 월 김진관 청주교도소로 이송 (수감번호: 250번)
16. 금 공동변호인단 20명 상고심 선임제 제출
11. 27. 금 “아직 끝나지 않았다! - 김진관 석방을 위한 한마당” 행사
장소: 이대 가정관 소극장, 참석인원: 5백여명
12. 12. 토 공대위 대법원 재판부에 탄원서 발송
15. 화 공대위, 전대협,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22. 화 김보은, 김진관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 — “상고기각”

1993년

1. 7. 목 김영삼 차기 대통령 앞으로 김보은, 김진관 사건에 대한 특별 면담요청서 발송 (공대위)
11. 월 김영삼 차기 대통령 앞으로 면담요청 제1차 방문 (김보은) 김진관 특별사면 탄원서 제출 (김보은)
11. 월 김영삼 차기 대통령 앞으로 김진관 특별사면 요청서 발송 (공대위)
14. 목 김영삼 차기 대통령 앞으로 김진관 특별사면 요청서 발송 (여연)
19. 화 김영삼 차기 대통령 앞으로 면담요청 제2차 방문 (김보은)

더 좋은 상담을 위하여

현혜순 / 본상담소 교육부장

상담이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생활과정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 감정, 행동 측면의 인간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습과정이다. 그러나 본 상담소의 상담은 이상의 일반론에 기초는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기상담이자 여성중심 상담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여성중심적 상담이란?

전통적 상담이 내담자를 '문제가 있는 개인'으로 보는데 비해 여성중심 상담은 성차별적 사회, 문화적 구조 속에서 여성개인이 억압당하고 이로 인해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을 억압하는 사회구조가 문제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피해자로서의 여성'이 남성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여성자신과 사회와의 관계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 여성들이 겪는 정서적 고통이 사회적 문제에 뿌리를 두었음을 강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전통적 상담은 내담자가 전문가에게 의존적인데 비해 여성중심적 상담은 내담자 자신이 구원자이며 자신이 갈망하는 해결은 바로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결국 여성중심적 상담은 남성 중심적 사회, 문화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여성 개개인이 당하는 억압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을 토대로 한다. 동시에 여성, 고립된 현실을 극복하고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인식하에 여성의 힘을 정치 세력화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한다.

* 위기상담이란?

중요한 생활목표의 좌절, 또는 생활양식등의 혼란에서 오는 과도한 긴장을 느끼는 내담자에게는 위기상담이 필요하다. 즉 성폭행과 같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도움받을 수 없다는 절실한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상황은 자살, 살인, 가출 등의 또 다른 위기상황을 낳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정서적 지원과 위안을 줄 수 있고 같이 있어 줄 수 있는 지원체제 즉 상담자가 있다면 그것은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이 된다. 일반적으로 위기상담은 전화상담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 진다.

1. 전화 상담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내담자가 즉각적 상담을 원할 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신분노출이 꺼려지거나 수치스럽다고 여길 때, 또는 먼거리에서 상담을 할 때, 전화상담은 효과적이다. 또한 자기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상담자로부터의 조언과 정보수집을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며, 내담자가 원할 때 아무때나 끊을 수 있어 부담이 적다. 반면에 서로의 얼굴을 보고 있지 않으므로 감정적 노출이나 표정을 읽을 수 없고, 내담자의 침묵을 헤아리기가 어려워 공감적 이해를 갖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일방적 통화이기 때문에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지속 상담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단절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상담사례에 비추어 보면 상담이 지속적 심리치유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데도 전화상담의 한계와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내담자측이 법적해결이나 보상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상담원 스스로도 이 한계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연구자세로 좀 더 양질의 상담기술을 개발하여 내담자를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성폭력 상담은 다른 상담과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즉 내담자가 무력감을 많이 느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약한 상태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꼭 다시 전화해 주기를 요구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재상담으로 유도하며, 재상담은 언제든지 하고 싶어질 때 하라는 식의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 편집자주 〉 나뉘터 6호에서부터 '상담은 이렇게'라는 고정란이 신설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상담부 모임에서 정리해낸 상담지침이 연재됩니다.

다시한번 상담원으로서의 나의 위치를 점검해 보자.

- 성폭력 상담은 비밀보장의 원칙이다.
- 내담자 위치에서 공감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상담원이 사건의 해결사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 내담자의 문제를 상담자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말고 내담자가 스스로 문제를 탐색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내담자의 지속상담을 위해 상담원간의 사례분석연구모임에서 더 많은 토의와 훈련을 거쳐 성숙한 태도로 내담자와 상담한다.

“방귀, 트림으로 강간을 모면한다?”

임순영/본상담소 총무

지난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세운 바 있는 정부제2장관실에서 얼마전 「성폭력! 이렇게 피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예방 및 모면방안」이라는 소책자를 펴냈다.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의 심각성을 생각할 때 사회제도적 차원에서 성폭력 추방을 위한 방안을 내놓고 끝이어서 개인적 차원의 자구책들을 제시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더구나 그 방법들이 일반적인 예방전략, 상황에 따른 예방전략,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른 예방전략 등으로 나뉘어 있어서 여성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될 만하다.

그러나 그 중에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무계한 방법들이 있어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일반적인 예방전략 중에는 마지막까지 다양한 노력을 모두 시도하라고 하면서 “코를 후빈다거나 몸을 가려운 듯이 굽거나, 방귀를 끼고, 트림을 함으로써 가해자로 하여금 여성답지 못하고 지저분하게 느끼도록 한다. 땅바닥에 누워 거품을 물고 미친듯이 신음하고 소리 지른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느끼는 성적욕구가 사라져 버려 강간을 모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아니, 위협에 처해있다고 해서 트림이나 방귀가 마음만 먹으면 금방 나오는 것인가? 강간을 당할 위기에 처하면 보통 공포와 놀라움으로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게 되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코를 후비고 미친 듯이 입에 거품을 물고 고래고래 소리지르는 ‘쇼’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위기상황에서 스스로를 구해내는 어떠한 자구책도 그것이 실행 불가능하거나 사람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이러한 모면책은 ‘정말 강간 당하기 싫다면 미친 짓이라도 해야될 것 아니냐’는 억지를 뒷받침 해줄 뿐 아니라 강간은 남성이 여성을 보고 느낀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일어난다는 잘못된 통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꼴이 되고 만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강간에 대처하라는 것은 결국 여성은 목숨만큼 중요한 정조, 순결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생각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성폭행은 정조의 문제이기 전에 인권침해의 문제이다. 여성은 이러한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우리사회는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여성에게 무모한 방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성폭행을 예방하고 그에 대처하기 위한 보다 적절한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성폭행을 추방하기 위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성폭행의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문화를 이루기 위해 개인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가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성폭력 사건일지

다음은 92.9.25~93.1.16까지의 성폭력사건입니다.

☞ 양키들이여! 당신들의 임무는 평화수호이지 성폭행이 아니다.

• 92년 10월 28일 동두천에서 미군클럽 종업원으로 일하던 윤금이씨(26)가 주한미군에게 살해당함 (윤씨의 자궁에는 콜라병 1개가 박혀 있었고 우산대가 항문에서 직장까지 27cm 박혀 있었음) - (각 신문과 인권단체 자료 종합)

☞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이여! 지구를 떠나거라!

• 생모를 성폭행한 뒤 불태워죽인 김영호와 13살 소녀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찔러죽인 전용운 등을 포함한 흉악범 9명이 지난 29일 사형집행됨 - (12/30 한겨레)

☞ 10대의 꿈 많은 소녀는 성폭행 당하고 살해까지 당하려고 태어난건 아닐진대...

• 20대 남자가 혼자있던 10대 사돈처녀를 성폭행한 뒤 목졸라 살해 - (10/26 한겨레)

☞ 딸도, 엄마도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 30대 남자가 딸미중 나온 40대 주부를 성폭행하고 금품갈취 - (10/6 세계)

☞ 취직 못하는 것도 서러워라커든 성폭행까지 당할까!

• 광고회사 사장이 취업면접을 미끼로 여대생을 피어 성폭행 - (10/10 세계)

☞ 지하철 = 지옥철 = 지긋철(?)

• 속칭 「밤풀데기」로 불리는 역주변 노숙자들이 여성승객을 상대로 추행을 일삼고 있음 - (10/21 경향)

• 울들어 지하철 범죄는 지난해에 비해 43% 늘어난 381건, 그 중 성범죄가 31건으로 전체의 12.3% - (10/20 경향, 한겨레)

• 지하철이용여성 71%가 성적 피해 경험 - (93. 1/15 여성, 1/2새건강)

☞ 빠지지 않는 성폭행 단골손님들

• 학원원장이 경리여사원을 7차례에 걸쳐 성폭행 - (11/30 경향)

• 10대 4명이 여고생을 노래방으로 유인, 성폭행 - (10/13 세계)

• 10대 폭력조직이 수백명의 국고여학생들을 성폭행 - (11/12 세계)

• 목사가 여신도를 20여 차례에 걸쳐 상습 성폭행 - (11/23 한국,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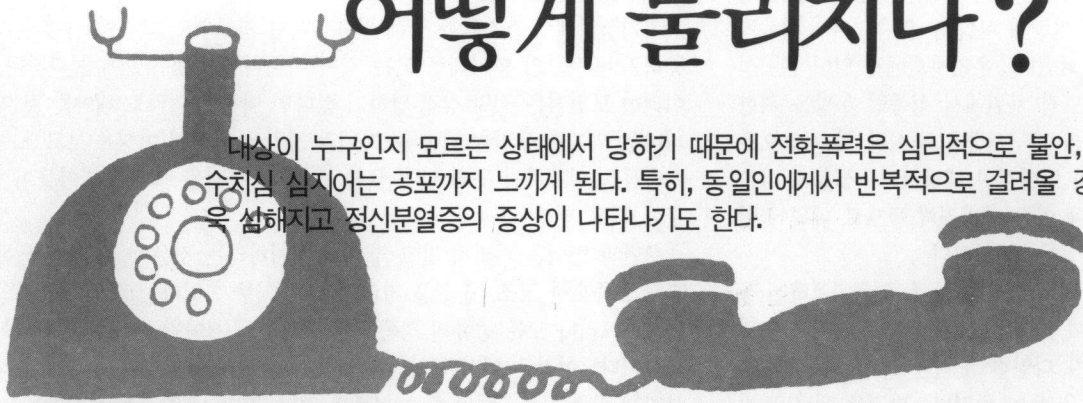
☞ 웬 O.K?

• 칼을 든 치한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껴 저항하지 못하고 성병이라도 막아 보자고 콘돔사용 요구한 미국여성의 행동을 텍사스 법원은 O.K한 것으로 보고 치한에게 무죄판결 내림 - (텍사스 연합)

정리 : 연민이/나눔터 기자

어떻게 돌리지나?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당하기 때문에 전화폭력은 심리적으로 불안, 무기력감, 초심 심지어는 공포까지 느끼게 된다. 특히, 동일인에게서 반복적으로 걸려올 경우에는 더욱 심해지고 정신분열증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1876년 미국의 알렉산더 그라함 벨이 최초로 전화를 발명한 이래 전
화는 현대 생활에서 중요한 문명의 이기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문명의
이기인 전화가 우리 생활에서 많은 편리함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만 건전한 전화문화의 부재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파괴되기도 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장난 전화를 통한 전화폭력이다.

전화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단순한 불쾌감에서부터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까지의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것을 일단 전화폭력이라 규정할 수 있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화폭력을 구분해 보면 전화폭력의 특징은 가해자의 입장에 보면 자신이 원할때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전화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얼굴에 의해 마음대로 농간(?)을 당할 뿐 아니라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몰라 초조하고 불안한 상태로 지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강도, 방화, 살인과 같은 폭력과 비교할때 물리적인 피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한 장난으로 취급되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전화폭력의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이라는 것이 큰 문제로 등장한다.

본 상담소에서도 전화폭력에 대한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며 상담소의 특성상 상담소를 대상으로 성에 관련된 장난전화, 음란전화가 많이 걸려 온다. 이러한 수많은 상담전화에 접하면서 편집부에서는 현재의 전화폭력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내담자에게 적절한 대응책을 알려주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이번 '나눔터 특집'에서는 상담소에 접수된 전화폭력을 중심으로 성(性)관련 유무에 따라 유형별로 정리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1. 전화폭력의 실태

1) 전화폭력의 현황

본 상담소의 상담통계에 따르면 (91. 4~92. 12 현재) 전체상담 건수 2천8백34건 중 전화폭력에 시달려 상담받은 사건이 39건이고, 상담소에 걸려오는 장난전화만도 79건 이상으로 전체의 약 5%가량을 '전화폭력'이 차지하고 있다. (장난전화는 대체로 기록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한다면 더 큰 수치를 차지한다.)

장난전화가 가장 많이 걸려오는 시간대는 오전에는 10시부터 12시 사이, 오후에는 2시부터 5시사이로서 주로 주부들이 혼자있는 시간에 많으며 밤에는 10시부터 새벽4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걸려온다. 특히 심야시간대(밤10~새벽4시)에 걸려오는 장난 전화는 수면방해 뿐 아니라 심한 노이로제증상까지 유발시키는 등 다분히 폭력적이라 할 수 있다.

2) 전화폭력의 유형과 사례

장난전화는 성적 내용의 관련여부에 따라 크게 '음란전화'와 '비음란전화'로 나눌 수 있다.

- ①음란전화-성(性)과 관련된 내용 성적 호기심 질문
성적희롱 (성적인 욕설포함)
성관계 질문
기타 성관계 내용

- ②비음란전화 침묵전화
일방적인 욕설
협박전화 살인위협
허위사실 폭로위협
유괴위협
기타위협
기타 상품강매 전화
단순 장난전화

장난 전화는 성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침묵전화, 일방적인 욕설의 순이다. 아래의 사례들을 본다면 장난전화의 폭력성은 실제 성폭행을 당하는 것 만큼이나 수치심, 모멸감, 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상담소에서 접하는 음란전화의 사례 -

〈사례 1〉

한밤중에 가끔가다 이상한 신음소리를 내는 전화가 걸려오곤 한다. 처음에는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어디 아프냐고 물으니 “나는 네 목소리를 들으며 지금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고 대답해서 음란전화임을 알았다. 그 후로도 계속 걸려와서 수화기를 내려놓고 자는 바람에 ‘모친사망’이라는 중요한 전화를 못받은 적도 있다.

〈사례 2〉

모잡지사 기자라며 부부간의 성생활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를 한다면서 얼마나 자주 관계를 갖느냐, 주로 어떤 체위로 하느냐는 등 꼬치꼬치 캐묻길래 의심스러워 이름을 물었더니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다.

〈사례 3〉

상담소에 아침마다 한 남자로부터 “니 XX 참 크다”, “니 XX 내 거랑 한 번 재보자” 는 등 음란욕설전화가 걸려오곤 한다. 성폭력상담소는 특성 때문인지 이런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

〈사례 4〉

모잡지사 기자라며 한 남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성관계 설문조사를 위한 면담을 요청해왔다. 면담요청에 응해주면 푸짐한 상품도 주겠다고 하면서 아주 지성적이고 진지한 목소리로 유혹(?)했다. 하마터면 속아넘어갈 뻔 했으나 약속장소가 음침한 곳이어서 나가지 않았다. 만약 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3) 가해자의 특성

한 보고서에 의하면 장난전화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중 장난전화 가해자의 성별이 남자라고 대답한 경우가 95.5%로 가장 많았으며 목소리를 통해 본 장난전화 가해자의 추정연령은 20대와 30대가 63.8%로 가장 많았다. 한 정신의학자는 이러한 가해자의 정신상태를 심리적인 요인으로 일어나는 ‘정신성적 장애인 질환’ 이라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전화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추잡한 말을 함으로써 성적흥분을 느끼는 ‘비정형성 성변태환자’라는 것이다. 이러한 전화폭력의 가해자들은 평소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으로 전화라는 매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욕구나 불만 등을 해소하게 된다. 특히 이들은 자신이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함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전화폭력의 가해자를 정신병자로 간주하기 보다는,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문화가 그들을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도덕적불감증’의 상태로 몰아갔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있는 견해라 여겨진다.

전화폭력은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도 마음대로 피해자를 괴롭힐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는 추세다. 어느 누가 걸려들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항상 잠정적인 피해자인 셈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전화폭력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그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자.

2. 대응방안

(1)개인적 대응 방안

1) 행동적 대응

① 재빨리 끊어버린다.

놀라거나 대꾸를 하면 전화폭력자들은 오히려 더 흥미를 느끼게 되므로 역효과가 난다.

② 남성에게 수화기를 넘긴다.

계속 올 경우엔 전화폭력자의 대부분이 여성의 목소리에서 만족을 느끼므로 가족이나 직장 동료 중 남성에게 수화기를 넘긴다.

③ 가족에게 반드시 이야기한다.

혼자만 알고 있다가 남편이나 가족이 알았을 때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다. 가족들에게 알려 공동대처하는 편이 현명하다.

④ 전화번호, 주소, 이름 등을 알려 주지 않는다. 언론사, 잡지사, 방송국, 여론조사기관을 사칭해서 묻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엔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를 건 취지를 묻고 정확히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⑤ 전화번호를 바꾼다.

심할 경우엔 도장 주민등록증을 갖고 전화국에 가서 신청한다. 비용은 들지 않으나 요금정산을 위해 1개월 사용료의 3배 가량을 예치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환불 받을 수 있다.

⑥ 전화번호부 114안내 기재를 삭제한다.

변경시에는 ‘계재불요’신청을 하면 새번호를 알 수없게 된다.

⑦ 괴전화 방지기를 이용한다.

단 작동 스위치를 켜 놓았을 때만 기능을 발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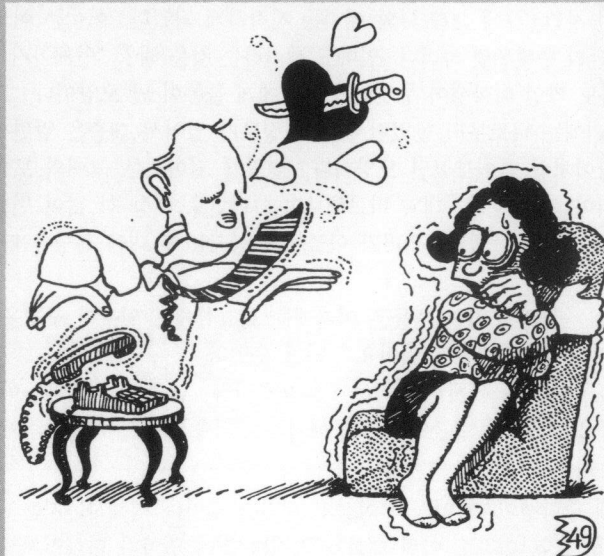
⑧ 지속적인 전화폭력인 경우, 상대방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법정증거로 사용 가능) 만나자고 유인하여 미리 대기시킨 여자형사기동대 (경찰)가 가해자를 잡을 수 있도록 한다. (민사적 처벌 방안 참고)

2) 심리적 대응

① 어린이의 경우

나눔터 그림

반쪽이



- 받기전

어린이일 경우에는 전화폭력에 대한 방어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성폭력예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키듯이 전화폭력에 대한 예비지식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 받은후

특히 음란전화를 받았다면 성을 수치스럽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성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② 성인의 경우

전화를 받고 혼자 알고 있으면 수치심, 무기력감, 자아상실감, 외출을 하지 못하는 등의 증세가 더욱 심해진다. 그러므로 반드시 가족과 상의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법적인 대응 방안

전화폭력이 일으키는 심각한 피해를 제도적으로 막아 처벌하는 데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든지 아직 어려움이 많다. 사실상 전화폭력법을 제대로 구속할 법적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료를 종합하여 맞는 죄목을 찾아야 한다. 현행 우리나라 법에서 본다면 형사적 처벌방안과 민사적 처벌방안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

1) 형사적 처벌방안

어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나 신체와 재산을 해친다는 등의 공포심을 일으키면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위해 위협을 하면 공갈죄(형법 제350조), 반복하여 폭언을 하는 경우 폭행

죄(형법 제260조 1항)에 해당한다. 그러나 단순한 성적희롱 등 모욕적인 내용의 전화인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다. 다만 이유없이 여러차례 되풀이 하여 괴롭히는 경우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된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 53호)

2) 민사적 처벌방안

협박이나 공갈 또는 심한 폭언을 하는 전화의 경우 정신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불법 행위가 성립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모욕적인 전화, 수면을 방해하는 심야의 전화, 그리고 뚜렷한 내용이 없는 전화라도 반복하여 괴로움을 주는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로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 단 이러한 형사적 민사적 처벌방안은 전화폭력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 전화 내용을 녹음해 두고 범인을 유인해서 체포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그 이외에 발신자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한국통신에서 개발한 '발신자 확인 장치'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18조와 "누구든지 전기통신 사업자가 취급중인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54조의 규정 때문에 보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발신자 확인장치'는 찬반론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체신부측은 전화폭력을 뿌리뽑고 말겠다는 의지에서 반드시 시행하겠다고는 하지만 과연 얼마만큼의 현실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내가 경험한 우리 아이 성교육

아들과 생리

심창교/두 아들의 엄마, 2기 상담원

우리 큰 아들은 엉뚱한 질문을 곧잘 하는 편이다. 그날도 반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나와 얘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아이는 여느때와는 달리 쭈뼛쭈뼛 하더니 "엄마도 생리라는 것을 해?" "언제까지 해?" 아마도 짝인 여학생이 무엇인가 아들에게 들통이 난 모양이다. 그런데 우리애는 나로부터 들었던 약간의 정보가 있어서 대충은 알면서도 개구장이처럼 물어보았던 모양이다. 빨갛게 달아오른 그애의 모습을 떠올리며 나는 우리시대와 비교해보면 그야말로 세상 참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가 아들에게 성(性)에 대해 설명을 다 해주고...

"엄마, 근데 우리반 애들은 여자애들 화장실에도 일부러 구경을 가고 장난을 하는 애들도 있어요" 하고 웃었다.

그 나이의 애들에게는 신기하고 이상하리라. 같은 반 남자애들이 여학생들을 놀려주며 우스꽝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아들은 자랑스럽게 늘어놓는다.

올해 중학생이 된 아들이 여성의 생리를 얼마나 이해하는지는 모르지만 모자기간이라도 이런 대화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우리 어른들은 성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생각때문에 아이들이

질문을 해와도 묵살해 버리기 일쑤다. 학교의 현실은 또 어떠한가. 여학생들만 따로 모아서 성교육을 시키고 있으니 남자아이들이 성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우리 아이들은 가끔 TV를 보거나 만화책을 보면서 성에 대한 얘기를 껌속말로만 나눈다. 들키면 야단맞는다는 것을 이미 아는 것이다. 이때 나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고 애들 사이의 대화에 끼어들어본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무안해하지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들어보고 질문도 하면서 점차 자연스러워진다. 비밀스러운 것 일수록 편견에 사로잡히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보노라면 '우리 아이들은 예외'라는 생각은 감히 못하게 된다. 특히 남자아이를 가진 부모일수록 나이에 맞는 성지식을 가르치고 남성우월주의가 아닌 평등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여성만이 순결이나 생리에 대해 알아야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올바른 성교육은 자기자신을 보호함은 물론 남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일인 것이다.

유년기의 성교육

여자애들 오줌 누는 것 훑쳐보기

김정희/이대 여성학과 박사과정

유아기에는 아이의 성적 호기심을 억누르지 말고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답해주는 것이 성교육의 중심이라면, '유년기'는 부모나 교사가 의도적인 성교육을 시작해도 좋을 연령대이다. 현실적으로도 이 시기에는 성적 호기심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늘어나므로 보다 적극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남아들의 경우, 여자아이들 치마를 들추는 '아이스 케키' 장난같은 것이 심해진다. 이것이 싫어 학교 갈 때 아예 바지만 입는 여자아이도 생기게 된다. 어머니들은 '치마들추어 보기(아이스케키)', '여자애들 오줌 누는 것 훑쳐보기' 등을 하는 자기 아들에 대해 자연스런 성적 호기심의 표출로 보면서 별다른 훈계를 하지 않고 오히려 대견스럽게 여기기까지 한다. 행동으로 표출되는 남자아이들의 성적 호기심을 대단히 나쁜 짓인양 호들갑스럽게 야단치는 것도 야단치지 않는 것보다 못한 성교육이지만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 또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 경우 부모는 "그런 장난은 아빠도 어릴 때 몇 번 한 적이 있긴 해. 그렇지만 놀림을 당하는 여자 아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네 여자 친구가 장난으로 네 팬티를 벗긴다고 생각해봐. 넌 기분 좋겠니? 친해지고 싶은 마음을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단다. 이게 인간 사회의 윤리란 것이고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지" 라는 식으로 아이를 꾸중하지 않으면서 상대의 성에 대한 관심도 예의 속에 표현되어야 함을 가르쳐야 한다.

아이가 하는 성적 장난이나 자위에 대해서도 아래의 사례처럼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이 좋다.

"어느날 아이가 밥을 하고 있는 내게 와서 내 잠지를 간지럽혀 보는 경우가 있어서 물어보았더니, 유치원에서 자기들끼리 이런 장난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럴 경우 나는 무섭지는 않은 목소리로, 어떨 때는 약간 익살스럽게 '너 간지럽게 왜 그래라고 한마디 한다. 그러면 아이는 비죽 웃고는 그만 둔다. 애가 이런 장난을 상습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서 순간순간 이렇게 넘어간다."

"한 번은 애가 이불에 자기 잠지를 부비고 있는 모양이 분명 '자위' 였다. '너 뭐하니?' 하고 묻기는 했지만 꾸중하지는 않았다. 가끔 이렇게 자위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여기에 탐닉하는 것은 아니라서 별다른 꾸중은 안한다."

위의 사례들처럼 아이들의 성적 행동은 아이의 성장 과정에 따른 자연스러운 행동 표출이다. 그것이 남을 불쾌하게 하는 장난일 경우는 부드럽게 윤리적 관계를 거론하여 짚어줄 필요는 있지만 성적 놀이에 탐닉하지 않는 한 자연스럽게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이들의 관심을 돌릴 수 있는 다른 기회가 제공되지만 한다면 아이들은 별다른 성적

(性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넘어가기 마련이다. 탐닉하지 않는 한 약간의 자위는 자신의 성감을 자율적으로 느끼게 하는 효과를 가지며 이런 정도는 성인기의 성생활에 오히려 유익하게 작용한다.

국민학교 고학년의 경우는 성교육 책을 사서 부모가 함께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엄마가 아기를 가졌어요」(이다와 페터의 성 이야기, 현민시스템)는 다섯, 여섯살부터 국민학생에 이르기까지 다 볼 수 있고 「엄마,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달라요?」(김남선, 사계절)와 같은 책은 고학년에 적합하다. 이런 책을 아이가 몽정이나 월경을 시작하면 선물로 주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그리고 몽정이나 월경이 시작되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어른이 되어가는 준비단계에 들어선 것임을 아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부모와의 대화나 가족 축하 모임 같은 것을 해주면 더욱 좋다. 최근에 성교육 동화가 범람하는 경향이 있는데 신뢰할 만한 성교육 동화는 아직 없다. 심지어 어떤 책은 말로 풀어주는 '아동용 음란 서적'이란 생각마저 든다. 이 점은 부모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아이들이 곧잘 드나드는 전자오락실도 성교육에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는 대부분의 전자오락 게임이 폭력적이거나 여자를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컴퓨터가 집집마다 보급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교육용 프로그램을 구입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모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아이들은 만화나 비디오, 스포츠 신문, 어른이 보는 잡지 등을 통해 여자를 성적으로 대상화시키는 '성상품화' 문화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문화는 성을 공격적인 어떤 것, 여자를 성적 노리개로 이해하게 함으로써 성폭력 문화를 조장하고 유지시키는 근간으로 작용한다.

가능하면 YWCA같은 기관, 주부비디오 모임인 '영상모임' (549-2255)에서 추천하는 만화나 비디오 프로그램을 선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모가 성을 기피해야 할 어떤 것으로 보지 않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인간적으로 표현해야 할 것'으로 가르쳐 주는 데 있다.



딸배를 위한

엄인희/희곡작가

딸배는 복숭아빛 뺨을 가진 이제 겨우 중학 1년생이다. 이름은 '지은배'이지만 주위에서 딸배라고 부른다. 딸배는 이 별명을 아주 싫어한다. 이걸 그가 아직 어리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벌써 중학교에 들어간 남 아더러, 아기 때 부르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자존심 문제다. 그래서 딸배는 아직 이불 속에 누워 고추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방학 이기도 하고 일찍 일어나봤자 신통한 일이 없어서다. 어머니는 회사에 갔을 것이고 아버지도 공장에 갔을 것이다. 밥상은 신문지로 덮혀있을 것이고 우유는 냉장고 안에 있을 것이다.

고추가 점점 커지자 딸배는 벌떡 일어났다. 이걸 좋은 일이 아니야. 누가 말해주진 않았지만 하여튼... 화장실로 가서 오줌을 누어버린다.

식은 밥을 혀로 공기놀이하듯 굴리고 있던 딸배의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있다. 어쭈? 야! 엄마가 스포츠신문으로 덮어놨잖아! 신이 나서 만화를 들춰본다. 오늘따라 만화는 돌이 보기 쑥스런 것이다. '음.. 음.. 음.. 기다려왔어요... 이 순간만큼은 내 것이야...' 남자가 여자를 올라타고 있는 그림이다.

딸배는 씨익 웃었다. 국민학생 때는 그게 뭔지 몰랐다. 사람이 나이 한 살 더 먹고 남자가 되어가니까 알게 됐다. 실은 같은 반 키 큰 놈들이 말해주는 것을 들었다.

딸배는 다음 장면을 보지 않고 신문을 넘긴다. 만화는 언제나 거기서 끝나니까. 괜히 하는 척만 하지 진짜로 알고 싶고 보고 싶은 것은 숨긴다. 신문은 또 다른 것을 보

여준다. 이 추운 겨울에 수영을 즐기는 여배우들 사진이다.

딸배는 학원 종합반을 가다가 미라를 만난다. 괜히 쑥스럽다. '기집애... 국민학생 때는 짝도 했는데...' 키가 쑥쑥 커지고 젖가슴이 도드란 몸을 하고 뛰어간다. '미라는 이제 여자인가...? 옛날처럼 손잡고 뛰어다닐 수는 없나? 나는 남자고 재는 여자라서?'

한 시간이 지나자 옆 반이 소란스럽다. 어떤 남자애가 막대자를 앞에 앉은 여학생의 뺨스 속에 집어넣었다는 것이다. 선생님의 한테 이르지 못하고 끝나고 울고불고 난리를 친다. 딸배는 미라의 궁둥이를 보며 옛날 생각을 한다. 5학년 때 우연히 우뢰매 보는 극장에서 만났다. 앞에 앉은 미라의 궁둥이에다 딸배 일당이 오줌을 썼다. 미라는 혀만 끌끌 차다가 집으로 가버렸다. 그리고는 어머니들끼리 전화를 해서 된통 혼이났다. '여자애들은 왜 그 자리에서 펄펄 뛰지 못할까? 어둔데서 불켜면 꿈쩍 못하는 바퀴벌레처럼...'

어느새 주위가 조용하다. 여학생은 집으로 가버렸고, 남학생은 선생님께 불려갔다. 여자아이들은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고 분풀이로 옆의 남자아이를 때렸다. 하지만 남자아이들은 그 일로 불쾌하거나 나쁜 악질이라는 생각이 안든다. 딸배도 그랬다. '장난인데 뭐...'

점심을 떡볶이로 때운 딸배는 컴퓨터 학원으로 옮겼다. 실력이 실력이니만큼 중3 형들과 함께 배우는 딸배는, 오늘은 어떤 게임을 형들이 가져왔을까 기대하며 문을

들어선다. 벌써 한 컴퓨터 앞에 몰려있다. 그런데 뜻밖에 조용하다. 모두 침을 삼키며 화면만 본다. 드디어 어유, 어유, 죽았구나 하면서 바지 뜯어지는 소리가 난다. 여자가 옷을 하나씩 벗는 게임이다. 딸배는 저런건 집에서 혼자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복사할 수 없을까 궁리한다. 그 디스켓을 가진 형한테 이런저런 흥정이 들어간다. 딸배는 우선 눈알을 굴리며 옷벗는 여자만 들여다본다.

"따르릉" 어머니의 확인 전화가 온다. 오늘은 무얼 했니? 몇시면 들어간다. 그때까지 요것 조것을 해놔라, 뭐 먹고 싶니? 뭐 필요한거 없니? 딸배는 친구들이 왔다는 걸 알고 싶지 않아 얼른 끊는다. 왜냐면 여자애들 생리에 대해 얘기를 나누던 때라. 딸배는 그런 데서 피가 나온다는 말에 얼굴이 일그러지도록 착잡한 기분이 들었다. 미라도? 왜? 친구들과 딸배는 실망스러워 괜히 여자애들을 헐뜯었다. 그러다 어머니 생각이 난다. 울엄마도?

딸배 일당은 집에 알몸 사진 책이 있다는 근석이네로 몰려갔다. 거실에선 아줌마들이 모여 비디오를 보고 있다. TV에선 끄끽하는 자동차 소리와 따다다 하는 총소리가 시끄럽다.

근석이 방에 몰려앉은 아이들은 꺼내준 책을 들춘다. 진짜 사진은 아니고 명화집이다. 서양화 명화집인데 어찌된 일인지 전부 알몸이다. 아이들은 거기만 가린 아담과 이브를 보며 킬킬댔다. 밖에서 근석이 엄마가 소리친다. "니들 뭐하니?" 아이들은 얼른 컴퓨터를 켜다. 딸배는 목이 말라서 밖으로 나온다. 비디오에서는 이상한 신음 소리가 났다. 아줌마 하나가 딸배를 보며 말한다.

"애! 꼬자, 꺼! 포르노도 아닌데 왜 저러니? 이런건 야밤에 들어서 봐. 애들 있다."

딸배는 어머니가 하는 설겜이 소리를 들으며 TV를 본다. 대학생들이 나와서 좋아하는 드라마다. 오늘은 어쩐지 딸배가 좋아하는 누나가 사귀던 형하고 눈을 감고 뽀뽀를 한다. 음악은 꿈결처럼 흐르고 그 장면은 길게 이어졌다. 딸배는 자기 입술이 뽀뽀해지는 걸 느끼며 엄마는 뭐하나 돌아봤다.

딸배는 한숨을 쉬며 이불을 덮는다. 이제 중학 1학년. 보이는 게 그거고 하고 싶게 만드는 게 그건데,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하나... 왜 내 눈엔 그런게 자꾸 보이지? 딸배는 자기가 이상 야릇한 인간이 아닌가의 의심해보며 잠이 들었다.

“그대안의 블루”를 보고

장영복/본상담소 상담 자문위원, 한양대 사회학

남성감독이 만든 “여성영화”
영상 세대의 새로운 영화
포스트 모던한 느낌의 영화
프랑스의 신 영화, 누벨바그 기법,
완벽을 추구하는 남성, 그와 함께 하는 ‘일하는 여성’
안성기와 강수연 (호식과 유림)
블루-그대안의 블루 라는 제목, 또 있다.

- 1) 24시간 함께 있다.
- 2) 숨겨진 재능을 찾아내며 일에 프로인 여자가 된다.
- 3) 나와 함께 있는 한 결혼 않는다.
- 4) (원하면) 성적 관계도 가능하다.

라는 ‘계약 조건’으로 ‘함께 살기’에 들어간 그들만의 공간을 묘사한 선전문기 등등...

여성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궁금하기에 이미 충분했다.

「안이 보이는 화장실, 40여 평의 원룸 시스템에 위아래로 나누어진 침실, 45인치 액정 TV와 7대의 멀티비전, 서라운드 시스템의 오디오 세트, 리모콘으로 작동되는 사방 브라인드, 8개의 옷 입지 않은 마네킹과 TV 머리 모형을 한 트루소들, 블랙의 소파, 침대, 탁자들에 긴 사다리 모양의 등받이 걸상, 보라색 벽지와 옅으로 누운 500ℓ 냉장고, 자동응답 전화기와 시장갈때도 휴대해야 하는 삐삐, 3대의 맥켄토시 컴퓨터...」

한벽 가득 장식한 ‘그랑 블루’라는 대형 포스터의 이름 그대로 짙은 푸르름의 공간(주거를 겸한 작업실)이다.

부제목에서 말하듯, ‘숨겨진 사랑의 이름’을 지니는 색채로, 차고 냉정하며 엄격하고 우울함이다.

이 영화는 이중분류법으로 인간 삶의 부류를 블루지대에 속하는 안성기류의 삶과 옐로우 색깔인 강수연류의 삶이라는 두 분류로 나누고 있다.

현대화, 컴퓨터화 기계화된 블루공간 속에서 인간생리 작용까지 기계의 계산에 의해 작동 지시되는 이 남자는 사랑도 삶도 자기 식대로 정의하고 있다.

“사랑은 여자를 지배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이야.”
“사랑은 창조를 구속할 뿐이다.” 고로,
“사랑 따위로 내공간(일)을 오염시키지 마.” 라고 지시(?)한다.
“가정과 사랑 따위를 중요시하는 여자는 일에는 성공할 수 없어.”
“가정이나 결혼, 사랑보다는 일이야.” 고로 남편에게
‘식사 잘 챙겨드세요’ 따위는 하지 말 것을 주장한다.

낭만주의 시대의 아름다운 사랑도 여성을 구속하는 이데올로기라 하며 이러한 사랑의 거부는 영화 곳곳에서 나타난다. 지금까지 여성의 일로 여겨왔던 청소와 빨래는 기계가 대신하기에 (청소와 여자의 팬티를 세탁해 놓은 남자는 “기계가 했지 내가 하지 않았어.” 라고 한다.) 일! 집중하여 일하는 여성을 주장하고 있다.

스스로 이데아적인 예술, 완벽한 예술 추구로 일에만 몰두하지만 동시에 블루 지대의 예술에서 본 이 블루 남자는 순간주의에서 발생하는 상업주의 예술의 허무를 고발한다. 현대 직업인의 기계주의, 상업주의 (상업성에 의한 예술의 순간적인 제품화와 그 허무함)에의 싫증으로 극단적인 변태성과 완벽에의 환상주의로, 살아 움직이는 여성이 아닌 완벽한 여성을 추구하여 마네킹 여자를 찾게 만든다. 이 완벽주의는 직업적인 바깥일만을 추구하며 이 블루 공간에 들어온 노란 지대의 여인, 유림을 통해 서서히 사랑의 감정을 배워나간다. 한편 자칫 일과 사랑, 예술과 삶을 분리, 격리시키는 위험을 내포하지만, 마네킹보다는 살아 움직이는 인간 감성의 따스함을 (“여자 37.5도는 임신 가능한 최적 온도예요.”), 기계보다는 인간적인 냄새로 물들어 있는 삶 속에서 사랑을 통한 안정, 그리고 눈발의 영화 ‘러브스토리’ 같은 사랑의 낭만적 환상에서 벗어나 차츰 일에서의 성공이라는 욕망을 이끌어내는 여주인공 유림은 요즘 세대들의 똑똑한 매력적인 여성 (일, 반항, 공격)임을 주장하며, 한쪽 일만을 집요하게 강요해온 호식과의 애정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그 남자가 내게 요구한 색깔을 모두 버리고 이제 나의 색깔을 만들겠다.”며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한 편의 영화를 보고 할 얘기가 많다는 것은 나에게서는 큰 즐거움이다. 무엇이든 몰두할 수 있는 열정은 남녀 모두 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으며 완벽한 하나의 추구 만큼이나 일, 사랑과 조화를 향해 함께 찾고 나누며 나아갈 때 그안에 참평화와 평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때 “가장 나다운 색깔이 무엇일까”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미리보는 상담소

1월 --- 28일 나눔 6호 발간
29일 정기 이사회
30- 31일 전체 겨울 M. T.

2월 --- 3일 김진관 석방을 위한 거리 서명운동 (서울 YMCA앞)
6일 사례연구모임 정기총회

3월 --- 6일 사례연구모임 운영위원회
15일 제3기 상담원 예비 여성학 교육 시작 (3.15- 5.8)

4월 --- 3일 사례연구모임 운영위원회
13일 개소 2주년 기념행사, 상담사례 분석 자료집 발간
28일 나눔터 7호 발간

그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박춘선/제2기 상담원, 주부

6개월간 여성학, 상담학 교육에 이어 상담실습 교육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상담원으로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성폭력 상담소에 상담을 해온 수많은 상담사례들을 읽어나간 일이다. 거기에는 극소수 남성들을 포함한 대다수 여성들인 피해자들의 상처와 고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가부장적이며 권위주의적인 남성우위의 사회환경 속에서 거의 전적으로 여자들에게만 강요되는 순결 이데올로기 등 이중 삼중의 벽에 부딪혀 신음하고 있는 그녀들...

그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 인생에 닥쳐온 그 위기를 극복하려는 과감한 용기와 개인적, 사회적인 수많은 난관을 헤쳐나갈 때 더이상 자신을 상처나지 않게 하면서 자기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지혜일 것이다.

작게는 성폭력 피해자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혼자서는 엄두도 못할 용기와 지혜를 서로 나누는 일, 크게는 성폭력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을 인식시키고 일그러진 성문화를 바로 세워 참되고 새로운 성문화를 이룩해가는 일 등이 바로 성폭력상담소가 해야 할 일이며 거기에 소속된 상담원인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많은 부족함을 느낀다. 짧은 지식에다 나의 인생에서 얻은 이런저런 경험을 떠올리며 상담을 하고 나서는 왜 더 도움이 되지 못했을까 아쉽기만 하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길이 맞겠지, 그래 맞을 거야 하며 더듬더듬 길을 찾아가는 것만 같다.

그러나 이 글을 읽는 독자는 신출내기 상담원의 첫 해를 보고, 저런 이가 상담을 하는 곳에 어떻게 상담을 하느냐는 걱정은 안해도 된다. 우리 뒤에는 상담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힘이 되어주는 수사기관과 의사, 변호사, 학자들, 그밖에 성폭력을 근절하는데 뜻을 함께하는 단체와 후원자들이 있다.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원은 고통받는 피해자와 그들 간의 신속한 다리 역할을 한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위안과 더불어 필요한 정보와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고자 노력하며 대기하고 있다.

내 힘은 작지만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내 삶의 의무감 같은 것이 늘 가슴 밑바닥에 자리잡고 있다. 이곳에 몸담아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더욱 성실해야 한다는 또 한가지 과제를 갖게 되었지만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어줄 상담소 여러 선생님들과 우정을 나누게 된 동료들을 만난 큰 기쁨도 함께 누리고 있다.

사무봉사 활동을 하고 나서

순진무식하고 천진난폭한 여대생의 비애

박수미/사무봉사자, 천안단국대 국문과

누군가 그랬다. "여성은 최후의 식민지"라고. 짧지 않은 두어달 동안 내가 성폭력상담소에 사무봉사를 하게 된 것도 촌답이 서울구경 한번 해보자는 속셈도 있었지만 - 나는 전라도 골짜기에서만 살았으므로 - 가장 커다란 이유는 세상이 모두 경악했던 「김보은·김진관 사건」 때문이었다.

TV를 통해 보았을 때는 스쳐 지나가는 화면 속에서 나는 그들이 불쌍하다는 막연한 생각만을 했을 뿐 더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그런데 학교에 와보니 그들은 우리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이었고 총여학생회를 통해 얻어본 자료에서 보은의 처참했던 상황을 다시 접할 수 있었다.

관심이 깊어갈 무렵 "여성과 사회"라는 수업을 통해 여성문제에 대하여 더 깊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전에는 무심코 내뱉던 농담이나 행동들이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한학기의 짧은 강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각도에서 여성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다는 기쁨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강의하시는 선생님의 권유로 여름 방학동안 상담소에 나가게 되었고 사무봉사 활동은 그 어떤 책을 통해 읽은 문제보다도 더 생동감 넘치는 실무를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우선 사무실의 분위기부터 달랐다. 어느 공적인 일을 하는 사무실과

는 달리 밝고 따뜻한 그러면서도 약간은 긴장되고 정제된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상담원 선생님들의 말투나 스스럼 없는 행동 또한 서로간에 자매애를 느끼게 해주었고, 주로 전화상담과 면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갖가지 여성의 피해를 대변하는 일들은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까지도 보람을 느끼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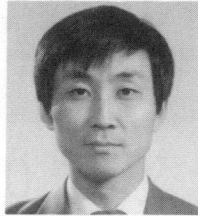
언뜻 보기에는 한손에 시장 바구니만들면 전업 가정주부마냥 참한 아주머니들이 일단 상담만 접하고 나면 타인의 문제에 대해서 - 그것도 사회와 본인조차도 등돌려 외면하고 말하기 꺼려하는 성폭력에 관해서 - 그렇게도 안타까와하며 자신의 일처럼 느끼고 해결하려는 모습 속에서 나는 희망을 보았다. 또한 딸들, 친구들, 직장 여성동료들에게 선물하겠다고 호신용 호루라기를 사려고 멀리서 찾아온 아저씨와 총각들을 보며 남성 또한 적이 아닌 한 어깨지고 나아갈 길동무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화요일은 일주일에 한 번 뿐인 상담소에 가는 날!

천안에서 서울까지 버스타고 나는 간다

타고난 천성인 늦잠으로 허둥대지만 즐겁게 콧노래 부르며 룰루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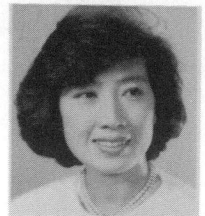
여성운동의 교두보가 되기를 바라며



이종길 (변호사, 법률자문위원)

이종길 자문위원 (37)은 현재 변호사로, 법률 자문위원으로, 성폭력 위기센터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등 여러모로 상담소를 도와주고 있다. 1992년 여성단체연합의 성폭력 특별법 제정에 참여하면서 법적조언이 필요한 많은 일을 하는 동안 상담소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비로소 심각한 범죄 행위로서의 성폭력이나 여성에 대해 보통 남자들이 갖는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자문위원이 보는 여성운동의 취약점은 헌법상의 자유권을 회복하는 근본적인 여성운동이 너무 미약하다는 점인데, 성폭력의 문제가 여성운동에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성폭력을 포괄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김보은-김진관 사건의 상고 기각이나 성폭력 특별법 제정에서 최선의 결과가 나오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상담원 교육 특강이나 사례발표 모임등을 통해서 법률에 관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었던 점이나 사회, 정치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여가는 일 등은 무척 보람있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피해자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 곳이 부족해...



박금자 (산부인과 전문의, 의료자문위원)

박금자 자문위원 (40)은 현재 '박금자 산부인과' 원장이며 남편과의 사이에 1남1녀가 있다. 같은 여성이기 때문에 더욱 환자들을 이해하고 믿음을 줄 수 있겠다는 자신감으로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택했다. 현재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성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다음세대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된다는 생각에서 다양한 사회문제, 여성문제에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다. 의사로서 시간도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처음에는 본 상담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이 힘들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을 접하면서 법적 증거물이 완벽하도록, 성폭력의 사실이 입증될 수 있도록 그들의 편에서 도와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있다. 성폭력의 문제는 법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많은 의사들이 참여를 꺼린다는 것과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 곳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이 박금자 자문위원에게는 가장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다.

(정리 : 김지혜)

나눔터 알리판

"함께 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 신규 후원회원 >

김명옥, 김세중, 김영진, 김지혜, 남창연, 박태중, 박혜성, 유복란, 육향순, 이경민, 이명원, 이효희, 정혜윤, 최혜선, 홍미경, 임재경, 장원희

< 기부금 내신 분 >

강영순, 김우영, 김청자, 이옥희, 전은희, 최영자, 한정자

< 물품 기증해 주신 분 >

안준영 ----- 도깨비 4 카드 프로그램 기증
박준선 (본 상담소 2기 상담원) --- 워드 프로세서 기증
여성신문사 --- 프로젝터 기증
유한 김벌리 - 티슈 4박스 기증

< 나눔터 신규 회원 >

박영미

① "후원회원 배가운동에 우리모두 동참합시다.!"

② 제3기 예비 여성학 교육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제 목 : 상담소 활동을 위한 제 3기 여성학 공개강좌
2. 대 상 : 주부 및 일반여성, 선착순 50명 대상
3. 기 간 : 1993년 3월 16일 - 5월 4일 (8 주)
4.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전 10:30 - 오후 3:30
5. 장 소 : 본 상담소 교육관
6. 수강료 : 6만원
7. 문의처 : 한국성폭력 상담소 (전화번호 : 525 - 5838)

강의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기 상담원 예비 여성학 교육 강의안

날 짜	강의 내용(오전10:30-12:30)	강의 내용(오후1:30-3:30)
1주 3.16.	앞 풀 이 (최영애:본 상담소 소장)	여성 어떻게 살아왔나 (오숙희:이대 여성학)
2주 3.23.	결혼, 성, 사랑 (장영복:한양대 사회학)	조별토론:나의 성장과정 (교육부 진행)
3주 3.30	여성과 가족관계 (김정희:서강대 여성학)	남성문화 (김찬호:연세대 인류학)
4주 4.6.	여성이 하는 일 (이숙진:서원대 여성학)	사례발표:새롭게 사는 삶 (변재란, 변혜정 자매)
5주 4.13.	여성 관련 법 (김엘림:한국여성개발원 책임연구원)	성차의 심리 (고석주:국민대 여성학)
6주 4.20.	우리사회의 성문제 (이명선:단국대 여성학)	한국여성의 성의 수난사 (안연선:이대 여성학)
7주 4.27.	여성 문화 (류숙렬:문화일보 기자)	여성단체와 여성운동 (강남식:서강대 여성학)
8주 5.4	자유로운 사회를 위한 도전과 선택 (최영애:본 상담소 소장)	뒷 풀 이

만든이 : 김영아, 변혜정, 연민이, 이계중, 장여경, 장윤경

상담은 이렇게 합니다

상담전화: 02) 522-1040~2



유한국 성폭력 상담소
(02)522-1040~2
법률·의료·심리상담

강간을 비롯한 성추행, 성적희롱, 음란전화 등의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정신과의사·산부인과 의사·법조인·경찰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

전화상담: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 오전 10시~오후 1시

면접상담: 화·목요일

집단상담: 내담자모임이 이루어진 뒤 시작

여러분의 조그마한 정성을 기다립니다

- **상담원**: 본 상담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여성학·상담교육)을 마치면 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사무봉사**: 상담소 활동에 필요한 여러 활동(번역, 사무보조, 자료정리 등)을 도울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525-5838)
- **물품기증**: 상담소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책상, 의자, 컴퓨터, 사무용품 등)
- **후원회원**: <성폭력 상담소>의 기본재정은 후원회원으로 충당됩니다. 고통받는 피해여성과 아픔을 같이 나누는 마음으로 상담소의 한 가족이 되어주십시오. 후원회원이 되시면 한가족으로서 상담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하고, 본 상담소에서 발간하는 소식지와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적은 돈도 큰 기쁨이 됩니다.

■ 온라인 계좌번호

국민은행: 009-01-1176-632	성폭력 상담소
농협: 037-01-194301	성폭력 상담소
조흥은행: 308-01-133092	성폭력 상담소
한일은행: 015-040018-01-001	성폭력 상담소